

갈라디아서 1장

1.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고전, 고후, 엡, 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롬, 빌)이다. 이런 표현에 비하면 갈라디아서의 서두는 어떤가?

아주 강성 발언이다. 통명스럽고 과격하게 책망하는 느낌이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였다. 같은 회사의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면 있을 수 있는 말 '월급을 내가 주냐?', '내가 날 임명했냐?'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2. 바울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아무래도 우리와 거리감이 더 있어 보인다. 달리 말하면, 천지만물의 창조보다 우리에게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이다.

3.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했을까?

"누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느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사건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다. 실력이 확실한 데도 굳이 자격증이나 학위가 있느냐고 시비를 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4. 일반적인 편지 서두에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해도 묻는 것은 안부나 건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간에 바울이 주로 쓰는 문안 인사의 골자는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다. 이것이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요긴한 것은 건강한 생활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지?

찬송: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는 말씀이 찬송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는 감격에서 나온 찬송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6. 성도들이 은혜(하나님의 자유와 용서)와 평강(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을 누릴 수 있는 이유(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이다.

7. 바울이 일차전도 여행 때에 들렀던 도시들은 데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다(행 13:16-14:25). 이들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말은?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의 중앙 고원지대를 가리키는 곳이다.

8. 사도 바울의 말이 여전히 격하다(6-10). 본래 그런 성품이었을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여기서 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격하고 험한 말을 할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좇기 때문에, 그것도 이같이 속히(6)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을 박멸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사울의 모습을 보라. 이 정도 말은 격한 편도 아니다.

9. 성도는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하나?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율법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른다.

10.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만이 복음이고 다른 사람이나 천사가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 즉 이단인가?

우리가 전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것이기 때문이다(11-12, 1:11-2:14).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은 설령 천사가 전한다 해도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시의 완성이라고 한다. 이 말은 성경에 맞지 않는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꿈이나 환상을 보아도 그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맞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다.

11.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성도들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조상의 유전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었다(14)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지만.

12. 과거에 자신이 행한 부끄러운 일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전한 복음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나 스스로 변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또, 새삼스럽게 율법을 문자대로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신이 대신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13.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몰랐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게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자신의 출생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4.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왜 아무와 의논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15.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아라비아(지금의 아라비아는 아니다. 당시에는 다메섹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메섹 근교일 수도 있다)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단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울이 사도된 것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회의에서 된 일이 아니다. 게바와 야보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 때 바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다.

16. 수리아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며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 오랜 기간 머물며 사역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음을 말하는 셈인데 핵심은 뭘까?

예루살렘이나 다른 사도들과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다.

17. 야고보는 행함예,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무슨 차이일까?

바울의 관심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에 관심이 더 있었을 뿐이다.

갈라디아서 2장

1.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한 후 떠났던 1차 전도여행 기간은 약 4년이다(AD 46-49). 이 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행 15:1-5).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후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다(첫 번째는 행 9:26, 두 번째는 행 11:30). 그러면 14년 중 나머지 기간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참고 행 9:26-30, 11:25-26)

다소에서 은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하도 거세서 고향으로 보냈는데 적어도 7-8년을 조용히(?) 지냈다. 실제로 그렇게 조용히 지낼 바울이 아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고향 주변, 즉 길리기야 지방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고 본다(1:21-24, 행 15:41: 1차 전도여행지가 아님에도 교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이 기간 중에 바울이 여기에 교회들을 세웠다는 뜻이다).

2. 전도여행이 끝나면 파송지(안디옥)로 돌아오는 게 정상일 텐데, 바울 일행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참고 행 15:1-5)

계시를 인하여(2)? 사도행전에 따르면 말씀의 해석문제 아니었나?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말씀에 대한 해석문제로 교회가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지만 그것이 성령의 계시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인간적인 동기로 하지 않았다는 확신의 표시이기도 하다.

3. 복음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았다는 말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공인된 것이라는 뜻이다.

4. 유명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출하고 검증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을까?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전에 헛되어 열심히 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다 죽이려고 눈이 벌개서 설치른 그 노력 말이다.

5.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만약 할례가 구원의 필수조건이라면 사도들이 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겠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할례가 구원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은 주체는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일 수도 있다.

6.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치 않았다고 한다(5).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할례를 행하는 것, 곧 율법에 따르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요(5),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16).

7. 할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즉 할례와 무엇이 대조를 이루는가?

믿음(16).

8. 복음에 관한 한, 나는 유명한 이들에게 꿀릴 것도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가진 복음이 저들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명하다는 것도 사람의 외모일 뿐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으시면 아무 것도 아니다. 편의상 유명하다는 말을 사용할 뿐이다.

9. 바울이 무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과 같은 일인가?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 바울의 사역(복음)이나 베드로의 사역(복음)이 동일한 것임을 사도들이 인정했다고 말하는 셈이다.

10. 바울이 야고보, 게바, 요한과 교제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 무슨 자랑인가?

자랑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거느냐?

11.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동행하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마 17:1, 막 13:3, 막 14:33, 눅 8:51). 그런데 여기서는 왜 순서가 야고보, 게바, 요한일까? 베드로는 없나?

바울이 마음대로 서열을 바꾸었을 리는 없고,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에 따른 것 같다. 단,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다. 12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했고(행 12:2)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야고보서의 저자).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헬라어)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친숙한 이름이다.

12. 유명한 사도들이 내게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뿐이었다. 왜 불만인가?

복음의 내용이나 사도권에 대해서는 비난받거나 잘못을 지적당한 적이 전혀 없었다.

13. 바울이 대선배이기도 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다니 그럴 수 있나? 무슨 큰 잘못이 있었길래 그랬는가?

외식: 이방인과 식사를 해놓고도 하지 않은 척 하는 것(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런 구분을 타파하는데 앞장서야 할 베드로(행 10:15)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런 책망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확실했다는 의미이다.

14. 바울이 ‘베드로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걸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을 따라서 추측을 해 보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고 관습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버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런 율법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율법주의자들을 주장에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바울의 자량이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할만한 자격, 즉 동등한 사도권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15. 베드로가 취한 행동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바울이 이렇게 열을 내는가?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한 것이다. 왜 믿음대로 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느냐는 책망이기 때문이다.

16.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과 달리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다(15). 그런데 알고 보니 율법으로 완전치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16).

17. 율법은 행위이다(16절 a, e). 그러면 믿음은?

은혜다: 믿는다는 것이 무슨 행위나 권리나 자격 충족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18.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혹은 예표였을 뿐이다. 그 당시에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를 썼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오실 메시아 때문이다. 그 시대에는 그나마 그것이 최선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필요치 않다.

19. 주제가 바뀌었나? 처음에는(1:1-2:14) 사도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2:15-21) 느닷없이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도권을 의심케 한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20. 17절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 아닐까? 그러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그럴 수 없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할 수 없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이상 율법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율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21. 바울이 헐어버렸고, 결코 다시 세우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슨 죄를 짓게 되는가?

율법, 하나님에 대한 배신: ‘범법한 자’라는 말은 ‘배신자’의 의미가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자를 의미한다(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

22. 바울과 율법은 어떤 사이인가?

죽은 사이: 헤어진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다. 죽은 자식을 아무리 달래고, 만저도 소용없는 것처럼 율법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

23. 20절은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 곧 ‘예수와 하나됨’이다. 다음과 같이 고칠 때 () 속에 알맞은 단어는(21절을 참고로 해서)?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사울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던 옛 사람은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가능케 하였습니다.’

율법, 믿음

24.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어떤 주장이나 예를 들고 있는가?

- 1)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았다(2).
- 2) 만약 할례가 구원의 필수조건이라면 나와 동행했던 이방인인 디도에게 사도들이 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겠는가(3)?
- 3) 복음에 관한한, 나는 유명한 이들에게 끌릴 것도 없다. 이유는 내가 가진 복음이 저들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6).
- 4) 내가 무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이나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이나 동일한 역사이다. 그들이 인정했다(7-8).
- 5) 유명한 사도들이 내게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뿐이었다(10). 복음에 대해서는 비난받거나 잘못을 지적당한 적이 전혀 없었다.
- 6) 오히려 수제자이었던 베드로 책망하기도 했다(11-14).
- 7)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님에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15-16).

갈라디아서 3장

1.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문제아를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만한 많은 이야기를 총동원해서 설득해야 한다. 때로는 '야, 이 풀대가리야'라고 소리 질러야 한다(1, 3).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주장이나 예를 다 찾아보자(1-18).

너희가 정말 풀대가리냐?(1, 3)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나 믿음으로냐?(2)

지금까지의 수고가 아깝지 않느냐?(4)

하나님의 역사(성령주심과 이적)가 너희의 행위 때문이냐?(5)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6)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8)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10-11)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다(11)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느니라(13-14)

사람의 약속보다 더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15)

선후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다(17)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다(18)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2.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구약을 잘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잘 보면 인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군데나 인용하고 있는가?

6번: 6절의 '합' 8절의 '하였으니' 10절의 '기록된 바 ... 하였음이라' 11절의 '하였음이라' 12절의 '하였느니라' 13절의 '기록된 바 ... 하였느니라'

3.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다는 말인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2:21) 수 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교양을 쌓기 위해서, 혹은 사업상 교제를 위해서' 다녔다면 그동안의 봉사나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다른 얘기는 접어놓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자(알고 싶다)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나 믿음으로냐?'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이 기대하는 답변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행 11:15, 15:7)

5. 믿음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무엇일까?

듣는 것(2, 5)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 10:17, 참고 요 5:24, 행 13:48, 18:8, 엡 1:13) 그러므로 들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6.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의 부름을 좇아 목사가 되었다가 돈 때문에 사역을 접은 사람? 생령으로 만들었더니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양자를 들어서 공들여 키웠는데 어느 날 그동안의 양육비를 갚겠다고 얼마나 고 묻는다면?

7. 갈라디아 성도들이 겪었던 많은 괴로움이란 무슨 괴로움일까?

믿음으로 인하여 당한 고난: 특히 바울을 적대시하며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고난일 것, 그것을 무의미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8.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기막힌 변증이다. 창 15:6 과 17:9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

할례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롬 4:10-11) 그 믿음에도 사실은 흠이 많다. 100%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믿겠다'는 각오에 지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다. 그것은 행함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란 증거이다.

9.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6)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8)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14)

10.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율법과 믿음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는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11). 반면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자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신 27:26) 율법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했다면 그렇게 하라(레 18:5)는 식이다.

11.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바울이 보기에는 저주다. 다 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율법에 철저히 행했던 사람의 말이니 그만큼 신빙성이 더 있다.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대신 감수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12.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성령의 약속(14)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복이기도 하다.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은 '약속된 성령'이다(행 2:38, 요 14:16-17). 그러니까 '의'는 동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의 약속'보다는 '약속된 성령'이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13. 15절 다음에 생략된 말을 넣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겠는가?

14. 사람들끼리 한 약속도 함부로 고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무슨 약속을 말하는가?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8):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던 약속,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폐하여질 수 없는 것이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방법은 율법보다 먼저, 이미 아브라함 때 제시된 방법이다.

15. 18절 말씀의 요지는 '율법과 약속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가?

행함: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유업은 은혜이다(186).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으려면 행함이 필요하다.

16.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터인데 율법은 왜 주셨다고 하는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 임시방편(19):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롬 3:20) 추가로 주신 것이다. 그것도 임시로. 모세가 중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신 이유와 관련이 있다(마 19:8):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다.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학생답게 생활하면 교칙이 필요 없다. 그렇지 못하니 필요한 것 아닌가? 교칙이 학교의 목표가 아니다.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일 뿐이다.

17. 율법과 약속이 중보자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중보자 얘기를 꺼냈을까(19-20)?

율법을 전해주는 데에는 중보자 필요하지만(196, 20a, 행 7:53 신 33:2) 약속을 전하는 데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다(206). 중보자를 거치지 않은 약속이 더 우월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약속(은혜)이었다(창 15장: 쪼갬 제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 아브라함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18. 언약에 비하여 율법이 열등한 점을 지적한다면 무엇인가? (1번 질문에 이어서, 17-21)

- 1) 나중된 것(17)
- 2) 중보자를 통하여 주어진 것(19-20, 중보자는 양쪽을 다 생각해야 한다)
- 3) 범법함 때문에(19, 범죄하지 않도록)
- 4) 일시적(19,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 5) 몽학선생(24, 아이가 자랄 때까지만 선생일 뿐 그 후에는 여전히 종)
- 6) 가두어 둠(22, 더 죄짓지 않도록, 가출 못하게)
- 7) 불완전(21)

19. 율법과 언약의 공통점은?

방향은 같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언약은 바론은 받아 하나님께로. 어릴 때는 몽학선생처럼 율법이 가르치다가 자라면 언약에게로 인계해야 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듯이.

20. 조선시대의 양반, 상놈에 대한 차별이나 남녀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현재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월감이나 민족적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인종 박람회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인종간의 벽이 여전히 높기만 하다. 어떻게 안 될까? 방법이 전혀 없을까?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도 불가능한데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28)라는 선언은 폭탄선언이다. 이 한 마디만으로도 바울이 남녀차별을 했다거나 노예해방을 부르짖지 않았다고 하는 비난은 삼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 1-7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은 다음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

[유업을 이을 자, 종과 다름없는 자, 모든 것의 주인,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자,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 아들]

아들(=모든 것의 주인,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세상 초등 학문(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가? 엄청난 퇴보, 퇴행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아무리 못나도 그러하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양자가) 된 것은 누구 덕분인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아버지의 정한 때(2)에 아들을 보내사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4): 때를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방법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어려서 율법에 매여 있거나, 유치한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을 뿐이다.

3.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이들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인가?

유업을 받을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다시 종이 되려함:

4.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율법에 복종하는 것은 마치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어린 상속자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은 아니고,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5.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4-5). 이것을 요즈음 많이 쓰이는 교육적 용어를 빌린다면?

눈높이 교육!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 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셨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감사한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자에게 나셨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다.

6. 우리가 아들이라면 우리 속에 그 아들(예수)의 영이 있어야 한다. 아들의 영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듯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말이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은 했으나(출 4:22, 사 63:16) 감히 부르지는 못했다.

7.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다면 누구의 수고가 헛일이 되는가?

바울(11), 예수, 하나님(4:6): 그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이제는 다 알면서 다시 종노릇 하려느냐?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종이 되려고?

8.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적절한 때였다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정황은(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제국의 확립(도로망, 치안,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음), 언어의 통일(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고, 70인역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 복음이 온 세상이 가장 빠르게 전파될 준비가 되었을 때에 탄생하셨다.

9.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니? 예를 들면?

금식일, 안식일(날), 월삭(달),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전절, 부림절(절기), 안식년, 희년(해): 이런 절기를 지킨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태도를 책망하는 것이다.

10. 몹시 화가 난 부모도 한참 고향을 지르다 보면 좀 수그러들면서 사정하기 시작한다. 거칠었던 바울의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잦아들면서 사정조로 바뀌고 있는가?

11절 부터: 10절 다음에 또 크게 야단을 쳐야 하는데 화살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 12절부터 다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되살펴 보면서 사정조로 이야기를 계속 한다.

11. 여태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성적으로 진리를 설명하던 바울이 이제는 감성에 호소한다(12-20).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되돌아보라면서 감성을 자극한다. 대강 내용을 쉽게 풀이한다면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도 있겠다. 어느 구절을 그렇게 고쳐 썼는지 () 에 관계된 절수를 넣어보자.

(13-15)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내게 얼마나 잘 해주었느냐? 우리 사이가 눈이라도 빼줄 그런 사 이 아니었느냐?

(16) 그런데 내가 이렇게 꾸중을 했다고 원수지간이 되겠느냐?

(18) 재들이 열심 내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득을 보려는 거야. 정말 좋은 뜻으로 그런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겠다.

(19-20) 너희들의 일로 인해서 몹시 당황스럽구나. 지금이라도 다정한 목소리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싶구나! 나는 지금 해산하는 여인처럼 괴롭구나!

12. 바울의 말이 효과가 있었다면 '진실에 입각한 간절한 간청'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서 12절은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솔선수범(모범): 감히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무슨 모범을 보였을까? 아마도 율법에 구속당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염두에 둔 것 아닐까?

13.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는 말(20c)은 '너희의 일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혹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음성을 어떻게 변화려고 하는 걸까?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하고 단호하게 말했으니.

14.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기를 극구 말리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15. 하가(=하갈)는 아들을 낳았으나 결국은 쫓겨날 운명이었다. 이 하가의 일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시내산, 곧 율법

16.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조선시대의 표현을 빌리면 정실부인에게서 난 적자)과 계집종에게서 난 사람(첩에게서 난 서출)이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이고 계집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계집종에게서 난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17. 예루살렘도 두 개가 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리적인 장소 곧 유대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약속에 의한 장소, 그리스도인, 믿는 이방인

18. 홀로 사는 자라는 말은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잉태치도 구로치도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 있는 자보다 더 자녀가 많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육체의 형편을 고려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런 기적이다.

19.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 유대인을 어떻게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약속을 따라난 자의 후손은 여전히 약속을 따라서 되는 것이지 또 다시 육체로(혈통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20. 믿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동원하고 있는 다양한 비유들을 찾아보자.

종과 아들, 어린 주인과 후견인, 적자와 서출, 하갈과 사라, 땅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홀로 사는 여자와 남편 있는 여자, 약속과 육체: 믿음과 율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일반인들이 쉽게 아는 비유를 들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특별한 은사이다. 멋지게 설명했다.

21. 다음 구절에서 () 안에 있는 밑줄 친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인가?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23)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 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 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를 핍박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노 계집종과 그 아들() 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이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리적인 장소 곧 유대인

약속에 의한 장소, 그리스도인,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믿는 이방인
유대인
이스마엘, 유대인
이삭, 그리스도인
이스마엘, 즉 유대인
이삭,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서 5장

1. 자유를 주셨는데 왜 멍에를 맬까?

진정한 자유가 뭔지, 멍에가 뭔지도 몰라서: 자신이 매고 있는 것이 멍에인지 자유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한 음행이나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는 그것을 멍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 혹은 자유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담배를 즐기는 사람은 그것들을 즐기는 것이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유라기보다는 멍에이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멍에이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여 스스로 섬기는 자세가 언뜻 보기에는 종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반면 율법이 주는 자유는 멍에이다.

2.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로 생각했다. 예수님도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울도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다(행 16:3). 그런데 여기서 왜 할례를 무슨 원수같이 취급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할례 자체가 아니다. 할례가 단순한 할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3, 4)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2). 그 분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이루셨다.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도록 하셨다. 디모데의 경우는 할례가 의롭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어두운 밤에는 촛불이 유용하지만 해가 뜨고 나면 오히려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할 뿐 아니라 잘못하면 위험하기도 하다. 촛불이 할례라면 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을 태양 앞에서 촛불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할례를 받으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할례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닌란 뜻이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4.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구별이다. 사람과 짐승(이방인)에 대한 구별이었다. 이제는 무엇이 그렇게 구별하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6):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당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할례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5.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2 가지)?

경주 도중에 나타난 휘방꾼(7): 100m 달리기나 400m 경주 도중에 뛰어든 방해자를 생각해 보라.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끔찍한 비난을 뒤집어 써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누룩(9): 작지만 전체를 변질시키는 위험한 존재들이다.

6. 느닷없이 누룩은 왜 등장하는가?

그릇된 가르침은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비유이다.

7.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요인을 여기서 찾는다면?

믿어 주는 것(10, =일종의 격려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일 때가 훨씬 더 많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그 사람에 대한 호, 불호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너희를 믿노라'는 격려도 성도들이 결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바울의 말을 다음처럼 고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냐? 내가 할례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당하면서도 그렇게 주장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자식들더러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_____'

헛질만 बे지 말고 아예 잘라버리라고 그래라.

9. 목표가 종노릇이라면 자유를 주고 왜 쥐?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1)고 해놓고 서로 종노릇하라니(13)?

자발적인 종노릇은 기쁘다. 종이라서 해야 하는 일은 고달프지만 자원해서 종노릇하는 일은 서로를 세운다. 종과 같은 마음으로 남을 섬기면 쉽게 몸과 마음이 상하지만 자유자로서 형제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서로를 건강하게 만든다.

10. 육체의 기회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만을 따라 사는 것: 우리나라에 자유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 옆 사람을 툭 쳐놓고 왜 때리느냐고 따지면 '내 자유다' 했던 때가 있었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남용인 셈인데 차라리 육체의 기회인 셈이다.

11.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마 22:37-39) 바울은 왜 한 가지만(14)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봐도 될 것 같다.

12.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보면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말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일까?

내 뜻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 지속적이면서도 순간순간 동행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죄성에 물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다.

13. 할례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형제사랑(13-15)이나 성령을 좇아 행하라(16-18)는 말이 왜 나오는가?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15). 아마도 할례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있었을 것이다. 자기의 주장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분쟁이 사라질 것이다(18).

14.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속의 죄악된 본성이 깨끗이 사라지고 선하게 되는 것 아닌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17): 선을 행하려 하면 육체가 나서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책망한다(롬 7장).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배받도록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도록 하실 것이다(롬 8장).

15.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의 항목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죄는 어떤 종류의 죄일까? 모든 죄의 선두 주자라고도 할 수 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나안 족속의 멸절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음행: 성적 문란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변질된 것이 곧 음란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 죄이다.

16.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것(자신의 의로 사는 것)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8).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안식교인들은 도덕적으로 보면 훨씬 더 믿음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육체의 일(19-21)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 아닐까?

19-21에서 언급한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의 예 일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도덕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 자들이기 때문이다.

17.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사랑이 될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8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다른 8가지가 어떤 관계인지 다음처럼 생각해 보자. 사랑의 결과로 () 과 ()을 누린다. 사랑 없는 () () ()는 스트레스다. 사랑 없는 ()와 ()과 ()은 위선이다.

사랑의 결과로 희락과 화평을 누린다. 사랑 없는 오래 참음, 온유, 절제는 스트레스다(자신의 내면을 향한 미덕). 사랑 없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은 위선이다(타인을 향한 미덕).

18.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이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은 이것을 롬 6:11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관심도 흥미도 없다. 불신자들과 우리가 흥미로워 하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가?

19. 성령으로 산다는 것과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서로 궤동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 것(24, 26의 역):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방언을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재산을 아까운 줄 모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6장

1. 누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비난부터 하기 쉽다. 이런 경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온유함과 두려움(=자기 성찰): 범죄한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냉철함으로! 구린 부분이 있는 사람이 더 타인에게 과격하기 쉽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2. 칭찬은 대단한 위력이 있다. 권면하면서도 적절하게 칭찬하면 쉽게 권면을 받아들인다. 바울은 무슨 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은근히 칭찬하는가?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고 말함으로 신령한 짓만 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신령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신령해지려고 하는 법이다.

3. 짐을 서로 지는 것은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가?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4. 3절을 2절과 연관시킨다면 어떤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인가?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뭔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것도 되지 못한 자는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 된 줄로 여긴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없이 종교적인 의무에만 충실한 사람이다.

5.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면 결국은 무엇과 같은가?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 3절을 4절과 연관시킨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되지도 않은 것을 열심히 자랑했다.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라(4).

6. 2-5절의 결론은 5절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자기 일이나 잘 해라: '형제의 짐을 지라. 형제를 돕지는 않고 율법대로 잘 행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라.'

7. 6-10절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6),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10), 심는 대로 거두리라(7, 이 구절이 고후 9:6에서 헌금을 권하면서 사용되었다): 실제로 바울은 당시에 헌금에 관심이 많았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2:10),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이었다. 3차 전도여행에서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바로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8. 6절은 선생님께 부지런히 선물하라는 말일까?

여기서 가르치는 자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다.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필요를 채우라는 의미라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 사역에 동참(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다.

9. '스스로 속이다'는 말은 '자신을 속이다'는 말인데 우리말 어법대로는 '속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조롱당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리가 없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수 없는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8): 심는 대로 거두 생각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육체를 심고 영생을 거두려 하는 자(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물의 복을 누리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이다.

10.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은 아주 많다. 예를 들어 보고, 그럴 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와주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비난할 때: 귀한 손님이라고 없는 돈을 빌려가며 대접을 잘 했더니 자기들은 평소에 이렇게 잘 먹는가 보다'라고 말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11. 1-10을 보면 구약의 어느 성경을 보는 것 같은가? 전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성령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잠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12. 왜 '자기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는가?

간절한 부탁을 의미한다: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고 있음을 알고 잘 부탁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수고를 하게 만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꾸중하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선생님을 이렇게 고생시켜도 되느냐고 책망하는 셈이다.

13.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비난하는가(12절에서 3가지를 지적하라)?

육체의 모양을 중시하는 자, 자원이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것: 그렇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편지를 마치면서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14.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할례 받은 것이 자랑스럽다면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율법의 나머지 규정도 다 지켜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

15.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전혀 자랑할 게 아니라고 말한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무엇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걸 내 자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새로 지음 받은 자'라는 것이다(15).

16. 14절 후반절에 따르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14b): 내 편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편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세상과 나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다. 세속적인 모든 욕심을 다 버렸다,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니 할례를 받든, 아니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나?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다. 그런 십자가를 버리고 할례를 자랑거리로 삼다니!

17.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16).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15):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언약을 따라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18. '나를 괴롭게 말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의 핼에 빠져들지 말라: 바울의 괴로움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흔들림 때문이지.

19.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한 흔적이 몸에 많이 있었다. 영광의 상처인 셈인데 이것을 예수의 흔적(낙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바울은 은연중 이것을 무엇과 대비시키고 있는 걸까?

율법주의자들의 할례: 그들은 할례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차라리 내 몸에 있는 흔적들이 오히려 더 귀한 것이다. 이런 수고에 동참하지 못할망정 엉뚱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꾸중하는 셈이다.